

4강 신화 쓴 정정용호, 새 역사에 도전



한국 U20 축구대표팀 이강인(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폴란드 비엘스코 비아와에서 열린 2019 U20 월드컵 8강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 연장까지 3-3으로 가는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세네갈을 3-2로 물리치고 36년 만에 4강에 진출해 미국을 꺾고 올라온 에콰도르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강인은 1골 2도움으로 한국의 세 골에 모두 관여했다.

한국 남자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국가대항전에서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한 정정용호가 새 역사에 도전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12일 오전 3시30분

(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2019 U-20 FIFA 폴란드월드컵 준결승전을 갖는다. 에콰도르는 대회를 앞둔 지난달 18일 평가전에서 이강인(발렌시아)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긴

U-20 대표팀, 36년 만에 4강행 내일 에콰도르와 결승 진출 다툰다

적이 있는 팀이다. FIFA 랭킹 59위로 한국(37위)보다 아래에 있다. B조 3위로 어렵게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지만 우루과이(16강), 미국(8강)을 연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 8강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세네갈을 상대로 정규 전·후반과 연장까지 총 120분을 치른 후, 3-3으로 비겨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웃었다. 승부차기에서 3-2로 승리했다.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1983 멕시코대회 이후 36년 만에 대회 4강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한국 남자축구가 FIFA 주관 국가대항전에서 4강에 오른 건 역대 세 번째다. 앞서 1983 멕시코대회, 성인대표팀이 2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다. 두 대회 모두 4위로 마감했다. 에콰도르마저 잡고 결승에 오른다면 남자축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

다. 여자축구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2010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해 U-20 여자월드컵에서는 3위에 오른 기억이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카타르, 일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U-20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카타르는 1981 호주대회 일본은 1999 나이저리아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 모두 준우승에 만족했다. 결승에서 카타르는 서독에 0-4, 일본은 스페인에 0-4로 패했다. 8강에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한 이강인을 비롯해 선발조를 펼친 골키퍼 이광연(강원), 국적인 동점골의 주인공 이지훈(대전), 장신 공격수 오세훈(이산) 모두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반대로에서는 유럽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가 결승 진출을 다툰다.

뉴스스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한 한국 대표팀 코치진이 10일 경기 파주시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훈련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표팀은 11일 이란과 평가전을 치른다.

벤투 “대표팀, 균등한 기회주는 곳 아냐”

파울루 벤투(50) 감독이 선수단 활용과 관련, 확고한 소신을 전했다. “큰들이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10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대표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벤투호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한다. 이란은 최근 벨기에 출신 마르코 빌모츠 감독을 선임, 팀 컬러 쇄신에 나섰다. 7일 시리아에게 5-0 승리를 거두며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벤투 감독은 “이란이 감독을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적인 스타일이나 특징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호주전에서 벤투 감독은 새 얼굴 기용에 소극적이었다. 3장의 교체카드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벤투 감독은 그러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출전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은 훈련에서 더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면서 “교체카드를 어떻게 써야할지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는다. 경기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선수들을 대표팀에 부르는 것은, 단순히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데뷔시키기 위함은 아니다”고도 했다.

▶이란과 상대전에서 열세다. 이란의 강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상대 분석은 늘 진행해 온대로 했다. 이란은 아시아컵을 끝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팀을 이끌었던 감독(카를로스 케이로스)이 팀을 나갔다. 새로운 감독(빌모츠)이 온 후 딱 한 경기를 치른 상태다. 감독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상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감독 교체로 인해서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스타일이나 특징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술과 전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용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점점과 실험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실험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원칙이 있다. 틀을 유지하고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실험하는 것이다.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더라도 (스타일의) 틀을 유지하며 경기를 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을 앞두고 최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면서도 추구하는 틀은 유지할 것이다.”

▶선수 변화에 소극적인 것 같다. 기본적인 틀 안에 있지 않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인가. “경기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은 훈련을 통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체 카드를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우리는 FIFA 랭킹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나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을 때도 많은 선수들을 소집해 관찰을 해 왔다. 선수 기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하고 들어가진 않는다. 경기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한다. 우루과이나 파나마 전에선 5명을 바꿨다. 6명을 모두 교체한 적도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적절히 판단할 것이다. 단순히 선수들에게 균등한 출전 시간을 주고 데뷔를 시키기 위해 대표팀에 소집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스

이정은, 숏사이트클래식 준우승

‘핫식스’ 이정은(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숏사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이정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럭시웨이의 시부 호틀 & 골프클럽 베이코스(파71·62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중간합계 10언더파 132타로 단독 1위를 달린 그녀는 최종합계 11언더파 202타로 렉시 톰슨(미국)에 1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정은은 3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71·6535야드)에서 끝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2주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어렵게 무산됐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승부가 갈렸다. 10언더파 공동 선두로 맞이한 18번 홀에서 이정은은 버디 퍼트를 기록했지만, 톰슨은 이골 퍼트를 성



공시키면서 1타 차로 벌어졌다. 하지만 이정은은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2점을 추가, 96점을 마크하며 1위 고진영(129점)과 격차를 좁혔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평균 타수에서도 69.641타로 1위 고진영(69.200타) 바로 다음을 기록했다.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상금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은 그녀는 이날 준우승 상금으로 16만223달러를 추가, 상금 순위 1위 또한 지켰다.

기성용, 오는 16일 아버지가 단장인 광주FC 홈경기 방문

프리미어리그 기성용(30)·뉴캐슬이 아버지가 단장으로 있는 K리그2(2부리그) 광주FC의 홈경기장을 찾는다. 광주FC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하나원큐 K리그2 2019 15라운드 부천FC전에 구단 홍보대사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기성용이 관전할 예정이다. 휴식기를 맞아 고향팀 방문을 결정한 기성용은 광주의 개인 최대주주다. 4000주를 가지고 있다. 창단 당시에는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 경기장을 찾아 이번이 4번째다. K리그2에서 선수를 달리고 있

는 광주는 기성용이 관전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2015년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0 승리, 2017년 FC서울을 상대로 3-2 승리, 지난해에는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3-0으로 이겼다. 또 광주 방문과 함께 구단 모교(금호고), 지역취약계층, 체육발전기금 등을 후원해왔다. 기성용의 부친인 기영욱 광주 단장은 “올 시즌 광주는 안팎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팀은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전용 훈련장과 구장 등 인프라도 구축 중”이라며 “광주시민과 축구관계자 등 모두가 광주의 승격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래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